

농촌 활성화 가속페달 밟는다

임실군 농촌지 거점화사업 내년도 농식품부 사업 선정 4년간 60억원 지원 '성과'

임실군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농촌 지역을 거점화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삼계면이 선정되면서 2021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임실군은 민선 6기가 들어선 이후 2015년 임실읍과 청용면 2곳에 14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강진면(60억원)과 2018년 삼계면까지 4개면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선 2013년 오수면에 지원된 70억

원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는 330억원에 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소재지에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기능을 확충,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거점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선정된 삼계면은 삼계리 소재지를 중심으로 민속문화전수관, 공회당, 구보간지소를 리모델링하고, 각 계층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작은목욕탕과 실내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건강지킴이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버스정류장 정비 등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과 가드

닝 운영 등 쾌적한 삼계 만들기 프로그램과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삼계면은 지난 2015년 공모사업에 아쉽게 탈락했으나 이번엔 재도전에 성공했다.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된 삼계면 발전포럼 운영 등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심민 군수는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한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좋은 성과를 내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 모두가 군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열악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슬레이트 처리 부진… 대책 필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5분발언서 예산지원 요구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나 선거구·사진)은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제안을 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우리군은 2013년 기준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건물이 3,355동 576,043㎡에 달하며, 처리 실적은 2016년까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의 경우처럼 매년 추가 자체사업비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추세로 보면 처리기간이 앞으로 2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군민 건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 지원으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량을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정유재란과 남원성전투’ 특별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은 지난 5일부터 11월 5일까지 2개월간 '정유재란과 남원성전투' 연합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시회의 주제는 '정유재란기 남원성 전투로 보는 호남'이라는 주제로 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남원성전투 관련 귀중한 유물을 중심으로 100여점의 자료를 전시한다.

올해는 정유재란 420주년을 맞아 전북도 박물관 미술관협회와 공동으로 당시 전란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인의총, 전북박람회, 수지미술관, 예가람갈미미술관, 전주역사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25개 기관이 전시 출품하였으며, 정유재란기 각종 무기를 비롯한 고지도, 화구 자료 등이 전시되어 지역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엘리트 선수 육성... 스포츠 중심지 우뚝

상반기 스포츠클럽 평가서 남원시 최고 거점 클럽 선정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2017년 상반기 스포츠클럽 평가에서 최고의 거점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2016년 11월 선정된 광역단위 거점 스포츠클럽(부안광역시, 광주광역시, 남원시) 3개소 중 최고의 거점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것이다.

A(우수)등급을 획득하여 B(보통), C(미흡)에 그친 다른 두 광역시를 제치고 최고의 스포츠클럽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두 클럽에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투명성, 기획, 운영 3개 영역 16개 세부영역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은 총 14개부문에서 매우우수 또는 우수 평가를 획득함으로써 소규모 지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라고 평가되던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어 금년도 상반기 최고의 유행어에 대입한 "스포츠 클럽 주인 꿈은 나야 나야 나"가 전혀 어색하지 않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중소도시로서 엘리트 선수 운영에 관한 세간의 의구심을 모두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에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한 2017년 상반기 스포츠클럽 평가에서 최고의 거점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비슷한 "1년 차 클럽이나 다수의 선수만 참가자를 확보하였으며, 복싱 및 테니스 종목에 있어서는 대표급 선발 등에 있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격, 수영 선수반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 있으며 기존 종목에서도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 등, 선수육성에 큰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대한체육회의 평가서는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었다.

작년 11월 1일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은 축구, 탁구, 테니스, 복싱 등 4개 종목에서 엘리트 및 생활체육 포함

약 2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엘리트 지도자는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구 도민체전 우승, 전북 교육감배 테니스대회 우승 및 준우승, 복싱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변길주 사무국장에 따르면 '남원을 대표할 만한 미래의 스포츠 인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최고의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하겠다'라며 금번 평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취약계층 촘촘한 복지망 만족도 높아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요자맞춤형 활동 활발

순창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실적을 파악하고 딱 맞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복지 만족도가 대폭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복지 환경과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복지 요구를 한발 앞서 살피기 위해 공공과 민간 자원이 연계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군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에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13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항상 취약계층을 방문해 어려운 분들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원하는 복지 수요가 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실제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월 2회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원예치료, 얼굴마사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음식점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결연을 맺어 반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원해준 음식점에는 착한가게 간판을 제작 지원해 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촌개발분야 국비확보 선전

내년도 7개사업 126억원 배기

순창군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와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국가예산 126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분야 신규공모사업에 7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126억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7개 사업은 △인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9억 5천만원), △북흥면 서마권역 종합개발사업(39억 3천만원), △시·군 창의아이디어 순창군 지역활력센터 운영(10억원) △적성면 괴정마을 공동

문화·복지 조성사업(5억원), △순창읍 무수마을 경관·생태 조성사업(5억원), △구림면 남정마을 경관·생태 조성사업(5억원), △군 역량강화사업(1억 8천만원)으로 사업비는 126억 규모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면단위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 역사·문화, 농촌·체험 소득자원을 특화한 농촌마을 개발을 추진해 농촌마을이 내재적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순창군은 이번 대규모 예산 확보로 농촌개발사업 분야 최고 우수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